

순정이

사순 제1 주일

제1독서: 창세기 2, 7-9: 3, 1-7
제2독서: 로마 5, 2-19
복음: 마태 4, 1-11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마태 4, 10)

놀부가 하느님께 드리는 편지

사순절에...



팔마천주교회 / 김 병 엽 신부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하느님이 하도 인자하시니 그러잖아요?
”

주님 저는 이마에 재를 얹고 사순절을 맞으려면 웬지 어깨가 무거워 지는 것 같고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소갈비를 앞니가 썩 빠지도록 더욱 뜯고 싶어지고요. 세갑 피우던 담배도 열갑 정도 피워 옆 사람을 아주 매움게 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아 너는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고 교회 전례를 통해서 말씀 하셨잖아요? 흠에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갈 인간, 거기에는 정녕 그 어떤 허탈과 아쉬움만 남는 것 같아, 아주 싫고 죽지 않고 오래 오래 살고 싶습니다. 지금같이 좋은 세상 TV도 실컷보고, 좋은 것이면 비디오 녹화를 해두었다가 보고 또 보고, 좋은 차로 연인과 함께 관광지도 실컷 구경도 하고 싶답니다. 주님 왜 교회 사순절에는 교만에 도전하라고 하지요? 저의 심정은 바벨탑 보다 더 높은 것을 세워 그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잘난체 하고 싶은데요. 잔피와 거짓, 그리고 위선과 은폐로 자신을 돌보이게 하고 싶구요. 약자를 사정없이 누르고 나보다 권력이 있거나 힘이 센 자들에게는 성님 성님하면서 째째 매고 싶고요.

왜 사순절에는 철저한 자기거부, 자기 비하를 통해서만 사람은 자기긍정 그리고 부활예로의 상승을 이룰 수가 있다고 가르치지요. 주님! 씨름선수 이만기라고 아세요? 저는 가끔 하느님하고 씨름하고 싶어진답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자마자 느닷없이 하느님 오른발을 두손으로 잡아 당기고 왜약다리를 걸어서 밀면 하느님도 넘어지실 것 같아요.

사실 하느님의 얼을 상실한 인간은 그 존재 의의나 가치를 상실한 것,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므로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떠날 때는 인간은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닌 한계성의 존재라는 것도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하느님이 하도 인자하시니 그러잖아요?

죄의 한계성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조건, 새로운 길, 새로운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교만과 불순명, 그리고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온갖 죄의 요소가 그리스도 순종과 겸손 그리고 투철하신 투신으로 보상되고 용서되고 있음을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아 더 이야기 할 것이 많은데 중이가 부족해서 더 못쓰겠네요.

사순절의 첫 여정을 힘차게 내디디며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김 병엽신부/팔마천주교회

여명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고창 동혜원 / 나 마리아 수녀

신앙생활을 이미 잘하고 있는 이들이 사순절을 잘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신앙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묵상해 보고 싶다. 이 말씀은 예수의 메시아적 신성을 시험해 보려고 율법학자가 예수께 한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대답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순시기에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단식과 기도,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40일간 광야에서 준비하셨던 기간을 기억할 것이다. 단식, 기도,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께서 사용하셨던 무기였다. 또한 예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우리에게 악의 유혹에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실상 인간의 고통은 바로 악, 죄로부터 나온 결과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젊은이, 노인, 부자, 가난한이 어느 누구도 이 고통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기도, 하느님과 한적한 곳에 머무, 단식은 감각적으로 인간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세상의 유희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구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가 우리에게 슬픔과 자기비애에 빠져 있는 시기 아니라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예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단식, 하느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시기여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형제들을 구제적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좀 더 표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식의 날들은 다음의 이유, 세상 곳곳에서 가난한 환경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함임을 알아야겠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은 것을…… 목달랐을 때에 마실 것을……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오 25, 31, 46). 인간의 마지막 종착지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에서의 해방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 동안 인간 해방을 위해 일하는 모든 기관들 사회복지 기관, 교육기관, 의료사업기관들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마운 마음으로 각 기관이 자기 사명을 바르고 성실하게 완수해 갈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순절을 내 가정 안에서 살기 시작할 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순절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여!
제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제가 고통을 겪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당신의 뒤를 따라 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저도 또한 제가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과
마음 찢기는 듯한 아픔과 병고와 슬픔을
서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제 고통을
지켜보게 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선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C. 엔즐러「모든이를 위한 십자가의 길」에서



어렸을 적의 교훈

"40일 때에 착한일을 하면 맛
고 좋은 것을 평소 때 보다 많이
늘나라에 준비하여 두었다가
는 것이고, 거꾸로 나쁜일을
면 죄가 배로 커져서 무서운
을 받게 된다."

약 60년전 내가 6~7세 되었을
첫 영성체할 무렵 우리 어머
가 일러주신 사순절에 대한 교
이다. 물론 여기에 부수되는
천사향도 많았다. 아침 저녁
도를 잘하고, 거짓말을 하지말
, 욕설을 해서는 안되고, 남을
위하지 말고, 게으르며 안되고,
구끼리 친하게 지내고, 불쌍한
함을 도와주고, 어른에게 공손
교..... 등등

어머니 무릎에서 잠이 들 때가
자세히 일러 주셨다.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날날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야
는가" 라는 설문앞에 서게되어
답을 모색해 보았으나 어릴적에
은 그 교훈보다 좋은 답안이 내
리 속에는 없고 더 보태거나
완 할 능력이 더 더욱없다. 두
산골 내고향에서 아침이면 노
지리 우짖을 때 버들가지 도시
(우리나라 고래식)에 긴 자루
미메고 아버지와 앞뒤 서서 내
너 사래긴 발을 향해 가시던 그
'낙네'의 사심없고 진정어린 소
한 그 교훈만을 되풀이 할 뿐
다. (7순이 다된 오늘도)

김 후만 / 덕진천주교회

깊은 인간관계

해마다 새봄과 함께 어김없이
작되는 사순절. 신앙심이 약한
인지 고통에 열심히 동참하고
육하고 경건한 생활도 못한것
다. 사순절을 지내고 나면 뭔가
를 하나 더 지은 듯한 껍질직한
분이다. 그 이유는 사순절=교
만을 생각했지 그 내면에 깔린

사순시기 - 어떻게 지내야 하나?

- 사순시기를 맞는 신자들의 마음들 -

'사랑'을 발견치 못한 까닭이었
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구원하시기 위
하여 고통과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
로 사랑하라"고 굳게 단행된 내
마음의 문을 애타게 두드리신다.
사순절을 맞으며 '사랑으로 가
득찬 삶'을 다짐해 본다.

"창녀와 세리들과 앓으병이의
친구였던 예수님! 주정뱅이, 수
다꾼, 지저분한 사람, 변절자
..... 등등을 대할 때 없신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그동안 수없이 열어왔던 내 마음
속의 재관소를 폐쇄시켜 주십시
요. 당신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어
루만져 주고 싶은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찍음으로써 당신 가슴에 못을
박는 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힘겹고 피로운 그들의 품안에 뛰
어들어 당신의 사랑을 전하며 깊
은 인간관계 안에서 삶의 기쁨을
공유하게 하소서."

김 평신 / 전통천주교회

보속하는 삶

저는 사순절을 무식한 말로 부
모님의 제삿날, 아니면 부모님의
상을 당한 시기라고 말하고 싶습
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해도
부모님이 상을 당한 날을 살아생
전 못다한 효를 뉘우치고 후회하
면서 그날만이라도 회개를 합니
다. 이와같이 우리 신자들은 사
순절동안 주님과 성모님께 못다한
효를 해드리는 시기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순절

을 구원의 시기, 속죄와 보속의
시기라고들 합니다. 보속은 죄악
에서 해방을 뜻합니다. 배상을
..... 우리들이 지은 죄를 고백성
사로 사함을 받았어도 보속해야
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한뿐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 나오지 못할 것이
다"라는 말씀은 하느님께서 정해
주신 보속입니다. 성인들도 하루
일곱번 이상 과오가 있다고 하는
데 하물며 우리같은 사람들은
..... 요즘은 사순절의 금육, 단
식은 너무 적다고들 합니다.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금육단식
보다 마음 안에서 나오는 금육
단식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입밖으로 나오는 말한
마디의 부주의가 얼마나 많은 상
처를 주게 되는지요. 성모님의
일생이 침묵이었고, 예수님도 빌

라도 총독 앞에서 사형언도를 받
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엔 말에 대한 보속
을 하면 어떨까요. 길할 길자를
분석해보면 흙사자 밑에 입자
를 씹습니다. 땅 속에 입을 묻어 두면
좋은 일이... 기쁨이 평화가 즉
침묵을 뜻합니다. 보속 중에는
나누는 보속이 가장 큼니다. 보
리빵 5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있던 소년이 내놓지 않았
다면 수천 명을 먹일 수가 있었
겠습니까? 같은 땅을 파는 삽질
도 금을 파는 삽질은 기쁨이요,
자기 무덤을 파는 삽질은 절망이
듯이 우리들의 일과가 마음 먹기
에 달렸나봅니다.

숲정이 천주교회/테레사

나의 결심

나는 가끔 나를 아는 천주교

"사랑으로 가득찬 삶을 다짐해 본다"



모두가 내 잘못으로 밖에 판단하
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나대로 가장이랍시고 오
늘날까지 가족들의 약점을 지적
하며 엄한 질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가장을 누가 존경하고 따르
겠으며, 말 한마디들 자유로이 할
수 있을까? 무언의 항쟁이 계속
되며 질식사 일보직전의 우리 가
족들에게 참아주고, 견디며 사랑
에 인식하지 않는 변화된 가장의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순
절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 대건(마가리오)/졸포공소

새 주교님을 맞으며...

전주 교구 이대로 좋은가?」하는
문에는 아주 다양한 응답이 예상된
「거 좋지!」, 「팬찮은 편이
.....」, 「잘 되잖아?」라는 긍정적
부류의 대답을 예상할 수 있지만
반에 전혀 다른 부정적인 응답도 또
가능하다. 「전주 교구? 형편없
!」 「교회가 어찌 그럴 수 있어?」
「때는 잘 되는 것 같더니만.....」,
되는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못
고 있는 것같지 않아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지금은 교회가
각계 각층, 그리고 전라북도 사회 안
에서의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한 다양
한 의견을 결집없이 수용할 때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전주 교구가 새로
태어날 때이기 때문이다.

새로 교구장으로 서품 착좌하실 이
병호 주교님의 영향력도 이제까지의
교구의 모습을 뒤바꾸실 만큼 막강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 천주교회는 주교
중심의 교회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4월5일을 전후한
4월 초순에는 서품 착좌하시리라 본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 목자를 기
다리자. 어떠한 달라져야하고 또 달
라질 수밖에 없는 「천주교 전주 교구」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쇄
신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사순시기를 보내자. 단계를 변혁의
시기! 무수한 말들이 난무 하리라!
모두 받아 들이자. 그리고나서 검토해
보자. 그러나 다음같이 말하진 말자!
「에이구 자신은 뭐 잘 사나?」-이
말은 가장 비접한 자들의 변명일 뿐이
다. ㉠

숲 정 이 산책

무법천지!

◀사 진▶
유 일 칼 라
☎ 84-9740
83-1949

솔미 피정의 집
피 정 안 내

피 정 주 제 : 회개에 대하여
때 : 1990년 3월17일~
3월 18일
대 상 : 천주교 신자
비 용 : (감사비 포함)
독 방 18,000
공동방 13,000
피정지도자 : 김정수 바르나바
신부님
신 청 접 수 : (0457) 362-5021~2

삼 의 피 아 노
코 아 특 약 점

코아백화점 3층
김 동 욱 (마 태 오)
채 순 님 (소화테레사)
☎ 80-1309

에복·속녀복·하이캐주얼·츄웨어
◎60%할인가격으로 연중판매
(교우특별우대)

신앙 신실활인매장
서 금 순 (세시리아)
코오롱상가 2층
☎ 83-4375, 87-0057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회장·드레스마춤·대여
최 윤 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수시모집·해외연수생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서울임상병리센터전북사무소
동위원소·혈액종합·약물 및 중금속
DNA유전공학·특수 및 일반화학
검사 수탁기관임

이 춘 수 (스테파노)
☎ 84-2778. Fax. 82-7878
전주시 경원동 1가 59-6
(제일방사선과, 서은옥피부과) 내

원아 (주)가 모집
엄마손아가놀이방

- 포레들과의 어울림속에서 바른성격 형성
- 놀이 기구를 통해 조기 지능개발을 유도
- 언어부진아를 위한 특별지도
- 인원 : 6명(정원제, 선착순)
- 대상 : 2세~4세의 어린이
- ※ 차 량 운 행
- 위치 : 효자생용 APT와 영광주유소 중간지점
(전주시 효자동 1가 562-6)

☎ 86-0227
원장 김 이레나

일분명상

우리는 돈을 선이라고는 생
각지 않지만, 돈이 기회를 제공
한다고 간주한다. 인간은 돈에
의해 많은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청송해도
안되지만 경멸해도 안된다.
돈은 더러운 것도 아름다운 것
도 아니다.

히브리 격언

명동피부과의원

성지 순례 모집

카이로●예루살렘●파티마●로마●
드리드●루르드 등. 완벽하고 성스
운 최고의 순례일정!
행기간 : 1차(부활절을 위한)
4. 10 (18박 19일)
2차(승천축일을 위한)
5. 22 (18박 19일)
행경비 : 2,670,000원
수 및 문의 : 주삼희관광 전주지점
☎ : (0652) 87-5532 (대)
당 자 : 황오스딩·이울리안나



두 세상을 사는 삶

- 조세열 (파비아노) 형제 -



이정금(리나·35세)씨와 나란히 하늘의 자녀가 되었다. 무덤덤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제대후 고향 전주에서 개인치과 병원을 개업하면서 신앙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 살림의 기반을 닦는데 급급한 나머지 주일날도 진료를 해야했기에 미사에도 전혀 참여하지 못했던 것. 그러던 차 효자성당의 레지오 마리에 회원이었던 유병환 형제의 방문이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효자성당 선교부장으로 추천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기 위해 마련한 기회가 아닌가 싶어 공손히 받아들였다. 선교 부원이 할 일은 막중하기만 하지만 다른 회원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므로 더 큰 자금을 받는단다. 그러던 89년, 그는 지리산 등반 때 특별한 체험을 통해 두 세상을 산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등반조난사고, 사망자까지 있었던 큰 사고이다. 그때 조세열씨는 심한 탈진과 이상체력현상을 일으켜 병원에 옮겨졌을 땐 이미 사망에 가까운 진단을 받았으나 기적처럼 3일만에 다시 소생했다. 그때의 상황도 그는 자신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인과 주위 신자분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열려덕분이었음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겸손하게 고백한다. 그와 그의 부인은 본당활동에 발맞고 나서는 열심과..... 앞으로 없는 자의 입장에서서서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겸허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그에게서 은총받은 사람, 보은의 미덕을 발견하게 된다.

“아직 신앙생활도 남달리 잘하지 못하고 드러낼만한 선행도 없는데.....”라며 인터뷰 요청을 극구 사양하던 조세열(파비아노·37세)형제. 그의 회곳회곳한 세치는 본 나이보다 더 나이들어 보이게 한다. 하늘님을 알게 된 계기도 특별할만한 것이 못된다고 말하지만 평범함 속에서 하늘님을 한 사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심을 그의 잔잔한 얘기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종교라는 테두리에 들어서본 적도 없는 그가 하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된 것은 85년 군의관 시절 치과부장으로 재직하면서였다. 가톨릭신자였던 전임부장이 남겨두고간 벽에 걸린 십자고상이 잠시 된가를 생각하게 했단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거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어찌면 힘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대로 둔 것이 신앙을 갖게 된 아주 작은 씨앗이 됐는지도 모른다. 그후 우연히 선배와 동료 장교들의 주선으로 담당 군중신부님(유경환 신부)을 대면하게 됐고, 마침내 85년 부인

요심이 (865) 김병오



鎭安지역은 完州郡高山, 華山 등지와 함께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은둔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1900년을 전후한 초기엔 馬靈而의 魚隱洞성당(1983년 2월에 鎭安읍으로 편입됐다.) 아 산협 지대에 들어섰음에도 鎭安지역과 長水군 일부지역의 전교중심지 역할을 훌륭히 해냈었다. 어른동 본당이 깊은 산골짜기에 있다면 한들(延章里) 본당은 鎭安에서 長水로 향하는 큰길가에 있다. 처음엔 어른동의 공소로 있었는데 1921년 11월 1일 李발도로메오 신부가 초대주임으로 부임

했고 그 이듬해 7월 성당(7칸 가와집)을, 7월 30일엔 사제관(5칸 가와집)을 준공함으로써 본당구실을 하게됐다. 2대 주임으로 權말구(永兆)신부가 1931년 2월 15일 부임. 진안읍에서 장래 본당기지 4천8백평을 매수, 현식당을 신축했다. 1941년 6월 3대 주임으로 李야고버(基守) 신부가 부임, 현재 延章국교의 전신인학교교사 8칸을 신축

같은해 5월4일 제4대 주임으로 許다루(日錄)신부가 부임, 6·25동란때까지 있었다.

51년 5월 6일 제5대 주임으로 金분도(盤石)신부가 부임, 54년 4월 鎭安읍에 전평 1백10평의 성당을 기공, 다음해 8월 22일에



진안·장수 전교중심지 - 한들공소

준공, 성모성심께 봉헌했다. 57년엔 사제관과 40평의 유치원을 신축, 小花유치원을 열었고, 같은해 鎭안드레아 석상과 십자가탑을 세웠다. 한편 언장리(한들) 성당과 함께 본당으로 있던 어른동 성당은 李발도로메오 신부가 1921년까지 있었다가 전임된후 신부가 공석이 되어 한들 본당에 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6·25동란후 아주 폐쇄되어 진안읍교회 소속의 공소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들 본당도 1954년 진안읍의 본당에 흡수됨으로써 공소로 남게됐다.



교구소식

1. 본당 구역장 및 반회장 연수회 실시 : 본당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구역장 및 반장 연수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요일	장소	인원	참가대상 지구 및 본당
3월 7일 전10시	수	전주 카톨릭센터	261명	북전주지구(중앙, 금암, 덕진, 동산, 서신동, 송천동, 금정이, 인후동, 호성동)
3월 8일 전10시	목	전주 카톨릭센터	301명	남전주지구(노송, 복자, 상관, 서학동, 우전, 용머리, 건동, 평화동, 화산동, 효자동)
3월 13일 전10시	화	군산둔용동 천주교회	207명	군산, 옥구(나운동, 대야, 둔용동, 오룡동, 옥봉, 월명동, 조촌동, 팔마)
3월 14일 전10시	수	이리창인동 천주교회	273명	이리, 익산(금마, 여산, 포함)지구(송학동, 신동, 영등동, 주현동, 창인동, 금마, 여산, 용안, 함열, 나바위, 황동)
3월 28일 전10시	수	전주 카톨릭센터	288명	정읍, 임순남, 김제, 무진장, 삼례, 고산(고창, 시가동, 신대인, 연지동, 남원, 순창, 임실, 부안, 수류, 신동, 요촌, 원평, 무주, 장계, 장수, 진안, 고산, 삼례)

2. 사회복지후원회(사랑의 다리)월례미사 : 월요일 10시30분 사회복지회관
3. 용머리성당 수녀원 : 전화(81-0441), 신태인성당(517국으로 바뀜)
4. 축! 영명 : 3월4일(성가시미로) 오현택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5. 현장에서 수고하는 청년 노동자를 위한 나눔의 미사 : 일시-3월7일(수) 오후7:00 장소-이리 창인 성당내 성요셉 근로자의 집(Tel 52-6949) 내용-1부(미사), 2부(나눔의 시간) 주최-가톨릭 노동청년회, 성요셉 근로자의 집
6. 교구 여성연합회 정기총회 : 3월5일(월) 오후2시 가톨릭센터

저희 모친 서 테클라 상중 함께 기도해 주신 신부님, 수녀님, 교형자매 여러분께 숲정이를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범창규
범석규신부

저희 부친 김 이시도르 상중에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신 신부님, 수녀님,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김수길·김윤섭신부
김완섭·김형섭

김형곤내과의원
김제요촌천주교회 옆
☎ (0658) 45-0088
원장 김형곤(베드로)
유숙영(헤레나)



●주단
●침구
●혼수전문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84-7294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발지도 (주부반 특별편성)
명륜서예학원
원장 선기정 (요셉)
효자성당 옆
☎ 82-6492

꿈란불치병상담소
중풍·관절염·디스크·신경통
박장춘(블라치도)·임혜선(에스텔)
자연식품 및 송죽알로에 <주부사원 수시 모집>
인후 2단지 금성교회 옆
☎ (사) 251-0848, (자) 82-3271

건강식품·화장품(피부맞사지)
남양알로에
(금암동 특약점)
위치 : 금암동 중앙도서관 정문앞
최무길(베드로)
이은숙(노엘라)
☎ 72-2118

●관하
성신활기원 개원
※ 국가공인 자격취득
※ 활기도 특수운동
※ 목·허리·골반 균형조정운동
●장소
전주시 완산구 전동 1가 187-12 (전동성당 사거리 윤가축병원 2층)
●전화
직장 85-3637
자택 84-8370
●원장 조정웅(베드로) ME7차
손옥연(루시아)

대입 종합반
개강 3월 5일
여러분의 의지와 한센의 의지가 만날때 소망스런 미래를 약속합니다.
전주시청앞 74-7424
대입 전문 한샘학원
전주시청앞 74-7424

신자들의 소리

아가의 미소처럼 깨끗한 아침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시린 겨울바람 속에서도 구원의 불씨를 일구어 천지를 여시는 주님께 찬미와 영광드립니다.

미소한 힘과 용기로 무한 고뇌 속에 섬세하는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죽음보다 강하며 영원히 끊이지 않을 사랑, 그 본체가 되신 주님. 보혈을 흘리심으로하여 세상과 다 대속하신 그분의 고통과 희생의 사순절을 맞이하여 새롭게

낮은 모습 낮은 마음으로

다듬어지고 향맑은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충족보다는 영적 충만함을 간구하며 인간의 몸으로 차마 견뎌내지 어려운 고통중에도 '당신 뜻대로' 모든 걸 내어 맡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정하신 그분께 기도드립니다. 눈이 내리듯 소리없이 쌓이게 될 정성어린 기도가 우리의 갈등과 고통을 치유시켜 주시도록.....

생명의 물줄기 활활터 사랑의 꽃을 피우듯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됨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기도와 선행, 죄사함으로 부활의 기쁨이 마련되도록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송 옥선 (헬레나) / 서학동성당

꺼려했던 선한 것들에게로 돌리는 마음이 곧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조그마한 희생과 극기가 곧 단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른 손이 하는 자선 왼손이 모를때에 더욱 빛이 난다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희생과 단식의 소리 깊이 깊이 덮여두고 진실하고자 낮은 모습 낮은 마음으로 맨 뒷 자리를 택하는 신앙인들이 아름답게 돋보이는 사순절입니다.

안일과 독선으로 치닫던 일상을 선하다 선한 자신의 마음에 엮어 봉헌하며 나날이 곱게 씻겨지고

다듬어지고 향맑은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충족보다는 영적 충만함을 간구하며 인간의 몸으로 차마 견뎌내지 어려운 고통중에도 '당신 뜻대로' 모든 걸 내어 맡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정하신 그분께 기도드립니다. 눈이 내리듯 소리없이 쌓이게 될 정성어린 기도가 우리의 갈등과 고통을 치유시켜 주시도록.....

생명의 물줄기 활활터 사랑의 꽃을 피우듯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됨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기도와 선행, 죄사함으로 부활의 기쁨이 마련되도록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송 옥선 (헬레나) / 서학동성당

이리송학동성당 - 기공식을 마치고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생동의 계절 춘삼월의 문턱에서 우리의 숙원인 성전 건립 기공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은총주시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그날 우천인데도 불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저희와 기쁨을 함께 하여주신 형제자매님께 전 신자들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고컨데 2년전 저희가 창인동 본당으로 부터 분리됐을 때의 심정은 버려진 이북 자식처럼 어느 날 갑자기 고아가 된 기분이었습니

다. 성당터는 커녕 본당 신부님께서 거처하실 방한칸 조차 구하지 못하여 전전긍긍 하던일, 100여명도 못되는 신자들이 모여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말자고 서로 손을 잡고 다짐하던 일들이 엇그제 일처럼 생생한데 이리 지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곳에 총공사가 무려 3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성전의 기공식을 마쳤으니 이 기쁜 마음을 무엇에 비하겠습니까. 오늘의 이 기쁨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정성어린 성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생각컨데 용돈을 아껴 저축한 돼지 저금통을 통채로 들고와 봉헌해준 주일학교 어린이의 성금,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구호비를 아껴 우리의 성전을 짓



는데 벽돌 한장이라도 돕고 싶다는 무의탁 할머니의 성금, 익명으로 전주 군산 서울 등 타지로 부터 봉헌해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성금, 그리고 멀리 서독 마인즈·교구 및 동교구내 한인 신자들의 성금 등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것이 주님의 각별하신 은총과 본당 신부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본당 신부님의 헌신적인 힘이라 생각하니 더욱 흐뭇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총공사비 중 아직도 약1억2천여만원이 부족한 등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고 슬프게 하는 것은 이웃본당 일부 신자들의 차거운 시선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네본당 내 본당, 네것 내것을 따졌는지 송

학동 본당 성전 건립이 송학동 본당 신자들만의 문제인지 생각할수록 야속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수양이 부족한 탓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지위가 높고 낮음에 있지 않고, 마음의 평화에 있음을 실감합니다. 우리에게 성전 건립은 의무이며 주님이 지워주신 십자가인 동시에 곧 마음에 평화를 의미합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촉촉히 내리는 봄비에 녹아내리듯 우리들의 잠시 갈라지고 얼어붙었던 마음도 성전 건립을 통해 녹아 내려 사랑의 공동체로 승화 되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 봉익 (오섭) / 송학천주교회 사목회장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황 인 규
수녀원 5-1714 보좌신부 최 용 준
유치원 77-1712 보좌신부 한 병 현
사무실 77-1711 사목회장 황 의 옥

※ 1990년도 부활절 맞이 성당마당 및 레지오회관 보수공사에 중앙가족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에 접수해 주세요.)
사순절 특별강연: 오늘, 공식미사후, 전영(안토니오) 신부님-광주가톨릭 대학교수 2. 사순절 불우형제들기: 성미·성광합 이용 3. 유아세례: 오늘 오후3시 부모님은 물론 대부·모든 꼭 참석해 주세요.
모임: 사목회-오늘 공식미사후 다미안회-7일(수)오후7시30분, 구역·반장회-9일(금) 어머니미사후, 오월의 마흔나 꼬미 씨용-다음주일 오후2시, 계속형제들의회-다음주일 오후2시
특별 가정방문 일정: 오전10시부터 6일-1구역, 11구역 7일-2구역, 12구역 8일-3구역, 13구역
십자가의 길: 매주(금) 어머니미사후
매주 금요일은 금요일입니다.
□ 지난주부헌금: 1,308,700원 □ 교무금: 1,277,000원

***금암**
FAX 251-3850 사제관 251-1912 주임신부 왕 수 해
사무실 251-1911 보좌신부 이 사 정
수녀원 251-1913 사목회장 정 주 환

※ 영화상영: 오늘 저녁8시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후
2. 애령회: 차주 저녁미사후
3. 교육가족회: 차주공식미사후
4. 구역장 및 반장님 회의: 차주 공식미사후
5. 사순절 사랑의 헌미에 관심을 갖읍시다: 종도리 쌀
6. 금주전례: 해설-나인구 독서①라홍대 ②최후날 봉헌-양정용부부 복사-정민영 장남수
7. 차주전례: 해설-심상기 독서①김인선 ②정화자 봉헌-김계열부부 복사-이항성 최계호
8. 미사안내: 자비의모후Pr. 차주-로사리의 모후Pr
□ 지난주부헌금: 898,610원 □ 교무금991,0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 태 수
사무실 3-2182 보좌신부 오 성 기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 낙 현

※ 환영합니다: 정말가리다 수녀님(환영식-공식미사후)
※ 사순절 희생과 사랑을 모읍시다: ①돼지 저금통 키우기 ②성미 운동 ③안쓰는 물건 모으기
1. 요셉회: 공식미사후, 울뜨레아 모임-저녁미사후
2. 가리따스자모회: 6일(화) 오후2시
3. 성심부녀회: 7일(수) 오전10시
4. 성서교실 개강: 7일(수) 부터 낮만-2시부터, 저녁만-저녁미사후
5. 금주분당청소: 천사의 모후Pr-10일 오후2시
□ 지난주부헌금: 923,720원 □ 교무금: 590,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 순 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 영 철
수녀원 77-4212

1. 사순절 동안 사제양성 후원금 및 관리인 숙소를 위한 저금통 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2.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구리아(후3시), 5일-빈첸시오회, 9일-울뜨레아(후7시30분), 10일-요셉회, 동령회, 차주공식미사후-안나화, 갈라라회
3. 구역미사(6일): 동산10구역 4. 나눔잔치(7일): 동산7 5. 구역장 연수회(7일): 가톨릭센터(10시)
6. 전신자 사순절 특강: 14-16일 오후7시30분
7. 금주청소: 매피의 모후Pr. 차주-증거자의 모후Pr.
8. 금주전례: 해설-김백전 독서①이준산 ②최옥기 차주전례: 해설-김현식 독서①최연주 ②허남준
□ 지난주부헌금: 317,500원 □ 교무금: 285,000원
□ 수우헌금: 46,630원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 성 팔
사무실 4-2214 사목회장 박 병 역

1. 벽돌헌금 및 폐품 수집: 우리들의 정성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2. 십자가의 길: 사순절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9시, 오후8시
3. 성전신축모금: 바이오 세라믹 원적외선요 판매-사목회
4. 반 모임: 1구-6일 오후2시, 2구-8일 오전10시, 3구-7일 오후3시, 4구-6일 오전10시, 5구-7일 오후3시, 어은골-6일 저녁8시
5. 구역장 및 반장 연수: 3월7일 카톨릭센터
6. 금주모임: 공식미사후-사목회, 성모회 차주-성조희, 울뜨레아
7. 부녀회 모임: 3월10일(토) 오전11시
8. 금주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박병연 ②김용림 차주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유준웅 ②윤덕남
□ 지난주부헌금: 331,170원 □ 교무금: 304,700원

***송천동**
사제관 74-8873 주임신부 김 태 운
사무실 74-1004 사목회장 김 인 철
수녀원 4-1142

※ 오늘은 사순제1주일입니다. 사순절을 희생과 보속으로 지냅니다. 신학생후원 돼지저금통-1세대 1개씩(희생, 절약)
1. 각단체장 및 임원모임: 공식미사후
2. 구역장, 반장 연수회: 7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모임-8일
3.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후
4. 금주분당청소: 송천5구역 10일 오전10시30분
5. 금주전례: 해설-김광자 독서·복사-이길호 이동규 기도-5구역 봉헌-김수철 장승례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은식 독서·복사-이진호 전원길 기도-6구역 봉헌-이민환 장승희 부부
□ 지난주부헌금: 507,320원 □ 교무금: 804,000원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 공 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김 경 주
수녀원 3-9567

1. 오늘: 성모회, 푸른순, 초동부주일학교 개회(오후2시) 사목회의 회, 각분과회의(공식미사후)
2. 사목회: 6일 오후8시(분과장, 차장만 참석)
3. 구역장, 반장 연수회: 6일(센터) 4. 구역모임: 6-8일 *송머 리 합조 5. 금주구역미사: 9일 오후8시 동양아파트 구역 6. 초 중고 고백성사: 10일 오후5시 7. 다음주일: 2차헌금 있음 모 임-울뜨레아
8. 성서강좌: 매주 목요일 아버지 미사(오후7시) 중예
9. 사순절 기간 매 금요일: 금요일(만14세부터) 미사후 십자가의 길
10. 사순절 기간동안 불우형제들기 운동: 성미, 성광 *성광합 성 방에 비치
11. 청소: 화-하늘의 문 투-순교자의 모후
12. 미사안내: 정의의 겨울 13. 미사해설: 양백용
14. 금주전례: ①백종운 고영숙 ②정진순 김영숙
15. 차주전례: ①이규철 고혜자 ②차환옥 송옥례
□ 지난주부헌금: 456,620원 □ 교무금: 340,000원

***인후동**
사제관 86-8876 주임신부 서 용 복
수녀원 86-8875 사목회장 정 수 일
사무실 86-5022

1. 유아세례: 4일 오후7시
2. 울뜨레아: 6일 저녁미사후
3. 구역장 연수: 7일 오전10시-가톨릭센터
4. 성령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후
5. 절미회: 8일 어머니미사후
6.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후
7. 관공성사·성경읽기: 요한복음 전부
8. 관공성사 시작: 11일부터
9. 감사: 성좌, 성합 기증하신 분들에게
10. M.E가족 모임: 3월11일 공식미사후 전원참석바람.
□ 지난주부헌금: 825,760원

***호성동**
사제관 78-0075 주임신부 정 양 현
사무실 78-1140 사목회장 박 대 규

※ 회개와 보속으로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냅니다.
1. 사순절 수우 신앙강좌2: 3월7일 오후7시
2. 사제양성후원 돼지저금통: 사순절동안 희생과 절제의 뜻으로 살찌웁시다. (구역장님 통해 배부중)
3. 사순절 불우이웃돕기 성미물 모읍시다.
4.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사순절동안 매주 금요일 미사 30분경
5. 오늘 주일학교 개회: 교리3시, 미사4시, 교리책판매-1,000원
6.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후
7. 가정방문 실시: 3월6일(화)-9일(금) 오후1시-5시, (화)-7-8구역(우아APT8-14동), (수)-9-10구역(우아APT15-21동), (목)-11-12구역(우아APT101-110동), (금)-13-15구역(우아APT111-115동, 우성APT)
8. 부활절 준비 어머니 성가연습: 월, 수, 금 오전9시30분
9. 금주미사안내: 셋밭의 모후Pr. 다음주미사안내-순결하신 모후 Pr.
□ 지난주부헌금: 494,600원 □ 교무금: 706,000원